

중소기업 “설 명절 자금 평균 2630만원 부족”

■ 중기중앙회, 중기 설 자금 수요조사

필요자금 2억원 넘어…매출 부진 속 단기 유동성 압박 납품대금 조기 회수로 버티기…금융비용 부담도 여전

중소기업의 설 명절 자금 공백이 평균 26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 자금은 평균 2억270만원이었지만 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 단기 자금 운용에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

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263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27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명절을 전후로 인건비, 원·부자재 대금, 외상매입금 상환 등이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상 중소기업의 단기 유동성 부담이 그대로 반영된 수치라는 분석이다.

자금 사정에 대한 체감도 역시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9.8%로, ‘원활하다’는 응답(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보통’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자금 여력이 빠듯한 상태에서 명절 자금 수요를 버텨내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금 사정 악화의 배경으로는 매출 감소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82.8%가 ‘판매(매출)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44.3%)과 ‘인건비 상승’(32.4%)도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매출 회복은 더디지만 비용 구조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자금 유입과 유출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족한 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응은 기업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납품대금 조기 회수’가 58.0%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차입’(42.5%), ‘결제 연기’(3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18.4%에 달해, 자금 여력이 취약한 일부 기업은 명절 자금 공백을 사실상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다. ‘양호하다’는 응답은 17.8%, ‘곤란하다’는 14.7%로 조사됐으며 은행 자금 조달 과정에서 특별한 애로가 없다는 응답도 86.3%에 달했다.

다만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

하다는 평가와 달리 금융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았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가 63.4%로 가장 많았고 ‘대출한도 부족’(38.4%), ‘담보 요구 강화’(19.6%), ‘신용대출 축소’(17.9%) 등이 뒤를 이었다. 조달 창구는 열려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인 활용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율러, 올해 설 상여금(현금) ‘지급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6.8%, ‘미지급’은 40.2%로 조사됐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13.0%였다.

올해 설 공휴일 외 추가 휴무 계획 여부 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91.6%)가 실시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추가 휴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8.4%)의 휴무 일수는 평균 1.8일로 조사됐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평균 50.0%, 정액 지급시 1인당 평균 59.3만원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매출 부진에 따른 자금 유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평균 2600만원이 넘는 설 자금 공백을 안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여전히 뚜렷한 자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명절 이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기관과 금융권의 선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한다

13일까지 현장점검·캠페인…상인회 등 애로사항 청취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소진공은 오는 1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에 전통시장 방문과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진공은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공단 본부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 분석 결과와 외부 신고 등을 종합해 점검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지역본부와 센터는 관찰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 활동도 추진한다.

지역본부와 센터는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알리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상인회 등 현장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도 청취한다.

이율러 상인회는 전국 지회 단위로 자정 활동에 나서,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현수막 설치, 사례집 배포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명절 전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대연 소진공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유통 질서가 중요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상인과 소비자 모두 안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중기부, 기술보호 정책 본격 가동

134억 투입…보안 인프라 구축 등 통합 지원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술보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늘어난 134억원이다. 중기부는 약 2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1개 사업을 통해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를 동시에 지원한다.

사전 예방 분야에서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통해 보안 수준 진단 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 서비스 등 10개 세부 사업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는 초보기업 3000만원, 유망기업 5000만원, 선도기업

7000만원이다.

기술자료 임치는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를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의 기술침해 소송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부담한다.

중기부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청,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살명회도 개최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AE 글로벌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수도권 거점 ‘우뚝’

상의, 서울 용산역 내 운영…누적 방문객 20만명 돌파

광주상공회의소가 서울 용산역 내에서 운영 중인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가 지역 기업의 수도권 진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소 이후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 누적 방문객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호남권 기업인의 실질적 업무 허브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10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라운지 이용객 수는 2만8758명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회의실 이용 건수는 1949건으로 5.1% 늘어 라운지 전반의 이용률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광주상의는 라운지 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지역 기업 제품과 호남권 주요 행사를 홍보하고 지난해에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운영 고도화를 지속해왔다. 올해는 증가하는 이용객과 회의 수요에 대응해 회의실 예약·이용 시스템을 개선,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역사 4층에 위치한 비즈니스 라운지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회의실 3곳을 비롯해 사무·휴게 공간, 업무용 PC, 복합기 등을 갖춰 수도권에서의

업무 수행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열차 대기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과 간단한 음료 제공, 와이파이 등이 지원된다. 회의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j-jnbiz.or.kr) 또는 전화(02-796-0007)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비즈니스 라운지는 쾌적한 휴게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창출되는 현장”이라며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이 수도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